성경 찢고 죽은 장로님

(롬9:19~29)

19.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20.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22.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4.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성경 찢고 죽은 장로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성경을 찢고 돌아가신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고, 다른 친구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무 일탈 없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학생회 청년회 그리고 집사님 거쳐서 장로님으로 평생을 사시다가 연세가 많이 들으셔서 병에 걸리셨습니다.
오랜 동안 병을 앓으시면서 이제는 자타가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좀 괴로워하셔서 자녀들이 함께 모여 괴로워하시는 아버지가 영적으로 고통을 이기실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 찬송을 부르려고 찬송가를 주섬주섬 들고 모였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께서 언성을 높이시면서 찬송가와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침상에서 일어나셔서 성경책을 빡빡 찢으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는 무슨 놈의 예수고, 천국은 무슨 놈의 천국이냐? 다 쓸데없는 짓이다!'고 화를 내며 성

경책을 찢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온 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에 반(反)한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또한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논리적인 얘기에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논리적 능력의 한계 안에서 도저히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문제를 실천적인 목회현장에서 관찰을 하면 얼마든지 납득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선택과 예정의 하나님의 행위가 담고 있는 신비함이 들어있습니다.
그 신비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성경을 찢고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죽음이 다가왔는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영혼이 올라간다는 것, 이런 것쯤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장로님이.
그런데 문제는 당신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 마음이 느끼는 것은 깜깜한 암흑뿐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죽을 거라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부터 하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현실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현실이 돼야 돼요.
이제는 이 세상을 등져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등졌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몸이 등지게 되었어요.
그 상황에서라도 하늘이 보여야 되는데, 마음에 하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늘이 보이지 않을까요?
장로님께서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실 수 있느냐?
그 의문이 계속 생기니까 사도바울이 오늘 본문에 쓴 겁니다.

비교하기 위해 스테반을 한번 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에요, 죽을 걸 알아요.
근데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나님과 주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의 마음속에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힘도 생기는 것이에요.
하늘을 열고 닫는 것은 스테반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정된 자, 선택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안 열어주시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실천적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체험하다 보면 선택과 예정은 정말 절대적으로 있는 겁니다.

평생을 난봉꾼으로 사신 도박을 하시던 할아버지가 폐암에 걸리셨어요.
자녀들의 간곡한 요청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이 점점 깊어지고, 병상세례를 베풀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기도를 하는 중에 당신이 제 기도를 채갑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도박하며 난봉꾼으로 살았습니다. 이 못난 자식도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대략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와 기도가 다 끝나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 말씀이 자꾸 누워있는 이불 밑으로 구름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구름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땅과 하늘을 구분하는 거예요, 구름이 없다면 땅과 하늘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구름이 있으므로 땅이 있고 하늘이 있음이 구분이 가는 것이에요.
구름 위로 올라와버린 겁니다, 이 할아버지 마음속에 하늘이 열린 거예요.
난봉꾼으로 사시다가 마지막에 폐암이 걸려서 믿게 된 이 할아버지에게는 하늘이 열립니다.
평생을 장로님으로 살던 분에게는 하늘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특별히 우리보다 더 가식적으로 살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보다 더 악하고 거짓되고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난봉꾼으로 산 할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구석이 있다고 해도 우리보다 더 좋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장로님이 가식적이었다면 우리도 가식적이고 그 할아버지에게 진실함이 있었다면 모든 사람에게 진실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도토리 키 재기이고 더 낫고 못하고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신비한 거예요.
그 신비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제 읽었지만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못한 17절 18절 말씀에 근거돼서 계속 이어져나가고 있습니다.
17절에는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여가지고 계속 저항하게 함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적적인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선민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즉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저항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려고 마음먹었으면 내가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완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나의 완악함이 어찌 내 책임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정과 절대주권적인 선택과 다 연관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주권을 가지고 선택하신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을 행하도록 자극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악을 행하도록 사주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처지, 하나님 이외의 것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너무 부드럽지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까?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가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나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골프를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시지요?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악입니다.
또 그런 비유를 들자면,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이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 잠깐 들러 아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려고 했는데 주방아주머니가 김치를 옮기다가 실수해서 넘어지면서 웨딩드레스와 턱시도에 부어버렸습니다.
김치는 입에 넣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음식입니다.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새로 맞춰서 입은 깨끗한 옷입니다.
그러나 둘이 만나면 결혼식을 못할 정도로 더러움의 극치가 됩니다.
지금 그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족도 깨끗하고 나도 깨끗해요, 근데 내 마음이 가족을 붙잡자마자 가족도 더러워지고 내 마음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나라까지 사랑합니다, 김치가 묻은 내 마음에 된장까지 묻혀 지는 겁니다.
돈까지 사랑하잖아요? 간장까지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묻은 음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서 문드러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더럽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더러움 속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 왕에게서 그 완악함이 어떤 통제도 없이 브레이크도 없이 다 표출될 때, 나라를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가 결국 애굽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 정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더러움 속에서 나타나는 완악함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돈도 적당이 빼앗아 가시고, 건강도 적당이 빼앗아 가시고, 권력도 하나도 주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완악함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일 뿐, 정말 바로와 같은 위치에 서거나 재벌과 같은 위치에 설 때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완악함이라는 것은 통제가 되지 않으면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건강을 통해서라든지 물질을 통해서라든지 자녀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 문제를 통해서라든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완악함이 위축되고 다 표현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계시니까 이 정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 구원을 위한 긍휼하심 이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미 다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십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멸망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 정도로 살고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더러움과 추악함을 생각하면 모두가 다 즉결심판에 넘겨져서 즉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살려주고 계시고,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 이거에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주권으로 선택을 하셔서 구원을 행하십니다.
은혜지요, 선택받지 못했다고 억울해할 것이 없는 이유는 원래 멸망이 내 몫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성경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주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맥락에서는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시 않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선택과 예정에 관한 얘기를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공부하고 배운 바 안에서는 그 누구도 온전하게 설명을 못해요.
단지 캘빈처럼 예정과 선택을 주장하는 사람과 인간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을 뿐, 온전한 해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모순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비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떨 때 그 신비함이 느껴지는가 하면, 실천적인 면에서 선택하심을 이해하려고 할 때.
실제 신앙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여 할 때 이게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세례 받을 때 제가 결단합니다.
또 제가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미루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의심이 생기지 않을 때 세례를 받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나의 결단에 의한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로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으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살며, 이 세상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에 온전히 100% 맡기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느껴지는 감격에 감사할 때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내 결단에 의해 믿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었어요.
이제까지 삶이 잘못 되었다고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키에르케고르 말처럼 7만 길 심연 위에 발을 내딛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걸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돌아보면.
되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분명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했어요, 근데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나는 어떻게 삽니까?
지금도 내가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사도바울의 말처럼 내가 참고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오늘 이렇게 살고, 내일이 돼서 오늘을 돌아보면 또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지금 사도바울이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10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전도여행을 했는데, 수많은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부딪혔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여호와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며, 여호와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먼저 믿어야 할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복음 사건을 안 믿고, 심지어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죽이지 못해 안달합니다.
이렇게 실천적인 면에서, 신앙의 현실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왜 안 믿을까?'
이유는 하나에요,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가식적이라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호와에 대한 지식도 없고 메시아에 대한 지식도 없는 율법도 언약도 모르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왜 받아들일까?'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도 로마의 박해 아래서 모두 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가 믿는 거예요.
믿을 때는 자기가 결단하고 믿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죽을 각오를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에게 인생을 다 걸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해주셨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걸 모순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신비로 이해해야 할 겁니다.
절대적인 모순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신비함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선택에 관한 고백은 언제나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되돌아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언제나 내가 결단하고, 내가 가고 있고, 내가 십자가를 붙잡는 나의 주체적인 책임이 문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분명히 내가 십자가를 붙잡는데, 내일로 가서 오늘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붙잡도록 도와주신 것이에요.
이 신비 속에서 하루하루를 나의 책임 하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 애를 쓰고, 어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는 겁니다.
선택과 인간의 책임 문제는 모순이 아니라 신비로,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두 개의 요소가 신비 속에서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선택과 연관된 신앙의 신비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그냥 우리들에게 강요되어지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를 도저히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 이끌어 가시는 은총 중의 은총이요, 위로 중의 위로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고, 우리 마음은 이 세상 삶을 떠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 갈 수 있는 천국백성들의 삶을 오늘

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